

국내 유일 외국인 한의학자, ‘세계화’ 꿈꾼다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한의학 연구자 제임스 플라워스 박사

몸 어딘가가 아파 고생하고 있을 때 “부항 뜨고 침 맞으면 싹 낫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국 전통 의학으로 한자문화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일대에서 향유되는 한의학(韓醫學)은 치료, 건강, 성장, 미용까지 한국인의 삶에 깊게 침투하고 있다. 한국인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는 한의학이지만, 누구보다 한의학의 세계화에 힘쓰는 ‘외국인 한의학자’가 있다. 한의학에 향한 애정 하나로 한국에 정착한 우리학교 기후-몸 연구소 제임스 플라워스 박사를 만났다.

한의학 새로운 인연의 시작

호주 출신인 플라워스 박사는 지난 2021년, 한국연구재단 해외 우수과학자초청사업(Brain Pool Program)의 지원을 받아 우리학교에 정착했다. 플라워스 박사와 한국의 연은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부터 한의학에 큰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대학 진학 고려 대상에도 한의학은 없었다. 게다가 지금처럼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한식당, 더불어 한국인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관심은 있었지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요.” 대신 ‘중의학’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증조부와 외삼촌이 중의사였던 영향이 없지 않았다.

플라워스 박사 눈에 한국이 들어온 것은 중의학협회 회장을 맡을 때였다. 이때 플라워스 박사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의사를 만나게 됐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중의학과 한의학을 동일하게 여기는 시각이 훨씬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한의사들도 중의학 회의에 자주 참석했다. “중의학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의사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됐다”는 플라워스 박사는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중의학 회의에 참가한 우리학교 김태우(한의학) 교수와 친분을 쌓으며 한의학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중의학 박사과정을 밟으려는 플라워스 박사에게 갑작스레 “한의학을 공부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사실 웃고 넘겨갈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플라워스 박사는 덩석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직 까지도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며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2010년, 한국으로 들어왔고 향후 2년 반 동안 진행될 박사 학위를 위한 첫 발걸음을 원광대에서 시작했다.

변화를 위한 발걸음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다. 해오던 공부를 그만두고 한의학을 공부하려는 플라워스 박사에게 대부분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미쳤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플라워스 박사는 15년간 쌓은 경력으로 호주에서 이미 성공한 중의사이자 교수로 평가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학문을 닦으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중의학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기에 더 그랬다. “중의학과 한의학이 같은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다수였다.

하지만 플라워스 박사는 생각이 달랐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남다른 마음가짐 덕분인지 원광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플라워스 박사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한의학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의학만의 매력 그를 사로잡다

플라워스 박사는 본인을 ‘한의학자’와 ‘역사학자’라고 소개한다. “외가 쪽이 중국계라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플라워스 박사는 대학에서 중의학을 전공하며 잠시 역사에 관한 관심을 접어뒀다. 잠시 저편으로 미뤄뒀던 관심을 한국에서 자유롭게 펼쳐내고 있다. 최근에도 플라워스 박사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국인이 어떻게 식민주의에 저항했고, 오늘날까지 한의학을 지켜냈는지 책을 쓰고 있다. 한의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의 발걸음에는 즐거움이 가득해 보였다.

플라워스 박사는 “중의학과 한의학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특히 안타깝다”고 말한다. “한의학이 가진 독특한 매력 있다”며 동양 의학에서도 중의학, 그리고 일본 의학과 구별되는 한의학의 차이를 강조했다.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통제되는 중의학과 달리



기후-몸 연구소 소속 제임스 플라워스 연구교수의 모습이다.

(사진=공예진 기자)

한의학은 의사 개인의 역량과 개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플라워스 박사는 “이런 부분이 의사의 지속적인 수련으로 이어지기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의학과 의 차이를 언급하며 “발전 과정에서 서양 의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의학과 달리 한의학만이 가진 독자적인 체계는 눈여겨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한의학을 단순히 중의학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각과 오해를 푸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책 집필과 과거 연구 역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서방 국가가 한의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했다.

이렇듯 다른 학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의학만이 가진 매력이 그를 한국에 정착하게 했다. 힘들었던 코로나19 시기 역시 한국에서 보냈다.

한국은 그에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플라워스 박사의 목소리에는 시간과 인연이 만들어 낸, 한국을 향한 애정이 묻어 나왔다.

한의학의 세계화 더 큰 목표를 향해

최종 목표는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한류에 음악, 영화 같은 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한의학도 포함돼야 한다”는 플라워스 박사는 “무엇보다 한국인이 한의학 전파를 위해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지금이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한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중 외국인은 플라워스 박사가 유일하다. 한의학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사람 중 유일한 외국인이지만 한의학을 향한 관심과 애정만큼은 국내 그 어떤 학자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학회에 가면 한의학 이야기를 꼭 해 한의학을 알리려고 노력하죠.” 인터뷰 내내 ‘음양’이나 ‘기’와 같은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플라워스 박사의 목소리에는 진지함과 더불어 열정이 가득했다.

한의학의 세계화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제게 있어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플라워스 박사는 오늘도 한의학이라는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